

신축년(辛丑年) 신년사

“노인복지분야 재원 과감히 투입 어르신 자립, 인생 제2막 지원”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천실버신문’ 창간 80호와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홍천실버신문’이 노인복지계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경자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든 해였습니다. 경로당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도 불편과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고령사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노인인구를 생산력으로 봐야 합니다. 노인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적 존재로 파악해야 합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 능력에 따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통합적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령화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복지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는 더 많은 재원과 정성을 투입하고, 복지전달 체계와 재정의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복지가 순조롭게 이뤄져서 노인자립과 더불어 인생 제2막의 발전을 이루시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고령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이 정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홍천실버신문’이 이 같은 노인복지의 앞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홍천군수 허필홍 올림

“집행부와 긴밀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 의장 공군오입니다.

2021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은 “하얀 소의 해”로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홍천군에 번성과 번영을 가져오는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해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가경제가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로 인해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군민들의 슬기와 지혜가 모여 역경을 이겨냈듯 앞으로 남은 어려움도 거뜰히 이겨 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사활을 걸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집행부와 힘을 모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군민여러분의 민생 안정을 위해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는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남은 1초를 황금같이 아끼어 군민 여러분의 복지와 홍천군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며 어느덧 홍천실버신문 창간 8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홍천실버신문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담은 소식지로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 10주년을 맞은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 증진과 노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홍천군 어르신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소소한 자아실현을 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며 홍천군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계십니다.

홍천실버신문 창간 80호와 더불어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전달하는 알찬 정보지로서 자리매김 해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높은 질의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홍천군의회도 군민여러분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정책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홍천군의회 의장 공군오 올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

**“군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금년은 홍천실버신문 창간 80호와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홍천실버신문이 어르신들께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발빠르게 전달하며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홍천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하고 홍천에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첫 발을 딛고 출발하여 고향인 화촌면장과 홍천군 재무과장, 허가민원과장, 주민생활실장, 기획감사실장 등 40여 년간의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2014년 홍천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홍천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강원도의회 재선 의원으로 일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의 걸림돌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택배비 지원, 농어업인 수당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앞으로도 강원도의회 부의장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홍천실버신문이 발전하고 홍천실버신문이 발전하면 홍천군민과 어르신 여러분도 행복과 함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군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신축년 새해

강원도의회 부의장 신도현 올림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미래 책임질 첨단산업 육성에 최선”**



2021년 신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홍천군 노인복지관과 홍천실버신문의 80호 발간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온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성실하게 성장해 왔으며, 홍천실버신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취재하고 발행하는 신문으로 각계각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지역의 대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방도로 및 지방하천 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용문~홍천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폐교된 구 강원인력개발원을 활용하여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개발을 통한 신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는 불편하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더 좋은 홍천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축년 새해

강원도의회 의원 신영재 올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

“어르신들이 기쁘거나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누며 의지하는 친구가 되겠다”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복지사업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 요소이면서도 코로나19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대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복지사업도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 등을 비롯한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 마음, 그리고 스스로 서로를 돕겠다는 배려와 상생의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함께 상생하려는 마음가짐이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려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로 서로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을 낳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상생은 우리가 모두 알 듯이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살아 간다’라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려가 기본이 되어 상대에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는 역지사지가 되어 배려는 또 다른 배려로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은 분별하고 차별하는 편협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매우 어려운 만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하며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몇 배의 행복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21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속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기쁘거나 힘들거나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누며 의지가 되는 친구 믿음직한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와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 자윌 함장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



귀의삼보하옵고. 먼저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과 홍천실버신문 창간 80호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일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소식이 없을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소식이 없는 것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니, 곧 기쁜 소식이나 다툼없다는 말이지요. 현대사회에서 무소식은 무관심과 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 서로의 소식을 알기 어렵고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와중 신년을 맞아 설날 까치와 같이 반가운 손님이 온 것 같군요.

작년은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는 얼어붙고 인간관계마저 거리를 두는 시점에 태풍을 비롯한 잦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류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아픈 환부가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과 경제의 발전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젠 이 발전 속에서 어떻게 더 사람이 공생하며 사느냐를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 ‘여백천등如百千燈이 광조일실光照一室에 기광其光이 변만徧滿하야 무괴무잡無壞無雜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 천 등불이 한 방에 비칠 때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도 서로 무너지짐도 뒤섞임도 없이 한 빛으로 밝게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자는 좌복을 이불삼아 정진을 하며, 사회 일선에서는 소란스런 상황을 야단법석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외호하는 이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대중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되 그 빛을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하나의 큰 빛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미래는 밝게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 홍천실버신문을 통해 널리 전해져서 홍천군과 홍천군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이 빛을 밝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희소식을 전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길 저도 기도하고 발원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 해량 함장

신축년(辛丑年) 신년사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자”**



새롭게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군민이 경제적으로나 마음 적으로 힘든 한 해로 하루 빨리 코로나 백신개발로 접종을 완료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먼저 홍천실버신문 창간 80호를 맞이하고,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홍천군의 노인인구가 2020년 11월 말 현재 18,050명으로 전체인구의 26%이상을 차지하며, 7개면은 40% 이상으로 10명중 4명이 65세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어른들이 잘하면 군민 40%가 잘하는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노년 세대가 더 이상 복지 수혜의 대상이거나 세대 간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살려 후배 세대에게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 굳건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세대가 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각종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과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관에서는 운영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 회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심 있는 분야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노인복지의 열악한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애정 어린 참여는 본 복지관이 노인복지에 대한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하는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봉사자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여 생동감 넘치는 노인복지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으로 노인복지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신축년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회장 이형주 올림

**“노인이 외롭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홍천
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 만들겠다”**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군민 복지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과 홍천실버신문 80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문이 잠기고, 사람과 이웃을 멀리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노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홍천실버신문이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 문제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의 인구수와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노년층은 우리 사회의 큰 성장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인이 ‘부양만 받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한편,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 육아, 가족간병 등 가족의 위기 요인으로 부각되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이 땅의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홍천실버신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노인이 외롭지 않고 모두가 함께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홍천군자원봉사센터도 같이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홍천실버신문이 보다 더 큰 발전을 이어나가고, 실버신문 독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새해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 조계준 올림